

1/3/16

설교 제목: 나와 내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전하는 이: 김순배 강도사

말씀: 여호수아 24:1-15

- (수 24:1)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겔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 (수 24:2)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훔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절관주** 창 31:53
- (수 24:3)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 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 (수 24:4)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고 에서에게는 세일 산을 소유로 주었으나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절관주** 창 36:8
- (수 24:5)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에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 (수 24:6) 내가 너희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바다에 이르게 한즉 애굽 사람들이 병거와 마병을 거느리고 너희의 조상들을 홍해까지 쫓아오므로 **절관주** 출 14:9
- (수 24:7) 너희의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나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의 눈이 보았으며 또 너희가 많은 날을 광야에서 거주하였느니라 **절관주** 수 5:6
- (수 24:8)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쪽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매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 주매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였고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시켰으며
- (수 24:9) 또한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과 싸우더니 사람을 보내어 브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 (수 24:10) 내가 발람을 위해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그의 손에서 건져내었으며 **절관주** 잠 16:7
- (수 24:11) 너희가 요단을건너 여리고에이른즉 여리고 주민들 곧 아모리 족속과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헛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의 손에 넘겨 주었으며
- (수 24:12)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써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절관주** 시 44:3
- (수 24:13)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에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절판주** 신 6:11

(수 24:14)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수 24:15)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2016 년 새해 첫 주일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교회 성도님들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사업체 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이 임하시길 축원합니다.

한 엄마에게 유치원 다니는 연년생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두 아들이 엄마에게 무엇을 사달라고 조릅니다.

아들이 하두 졸라 귀찮아진 엄마는 둘에게 각각 천원씩 쥐어주고 나가서 마음대로 사라고
합니다.

그러자 큰 아이는 그 돈을 덩싹 받아들고 원하는 것을 사러 갑니다.

그러나 둘째 아이는 자꾸 엄마 손을 이끌며 같이 가자고 조릅니다.

하는 수 없이 엄마는 그 아이와 함께 갑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모르긴 해도 엄마와 같이 나간 둘째 녀석은 천원어치가 아니라 양팔 가득 원하는 것들을 다
사가지고 들고 집에 왔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가 현명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둘째 아들은 엄마와 같이 감으로 길을 잃을 걱정도, 돈을 잃어 버릴 염려도 없었습니다.

가는 길에 나쁜 아이들한테 집적거림을 받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엄마라는 든직한 뺨이 있어 보호벽이 되었던 거지요.

가서 물건을 살 때도 딱히 금액에 제한을 받을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엄마의 든든한 지갑이 있으니까요.

엄마와 같이 간다는 것은 엄마의 지위, 힘, 돈, 모두를 내가 가지고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신다는 것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지위, 파워, 재물, 능력, 이 모든 것들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을까요?

미국 16 대 대통령인 아브라함 링컨이 노예 해방을 위해 남북 전쟁을 할 때입니다.

한번은 링컨 대통령이 지휘하는 노예 해방을 찬성하는 북군이 농장의 일꾼으로 노예들을 쓰고 있었던 그래서 노예 해방을 반대하는 남군에게 밀려 위급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링컨의 한 참모가 참모 회의에서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 주시도록 기도합시다."라고 건의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링컨 대통령은 "나는 지금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 주실까? 저쪽 편이 되어 주실까?를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있는가? 그렇지 못한가?를 염려하고 있다네"라고 하였습니다.

링컨 대통령은 자신이 하나님의 편에 섰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셔서 결국 그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노예 해방이라는 역사적인 대업을 이루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시길 기대하기 보다는 내가 하나님 편에 서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기 가장 쉬운 길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시도록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움직여야 하는데 내가 하나님 편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움직이기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인 동시에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 동시에 공의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내편이 되어서 나만 사랑하시고 나만을 위해 일하신다고 생각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자기 중심적인 사고입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가? 세상 편에 서는가?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중대한 선택입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 선택을 할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게 되고 그리하여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승리하는 삶, 복된 삶, 행복한 삶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은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후 이스라엘 민족의 숙원인 가나안 정복이라는 큰 과업을 성공적으로 이루어낸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여호수아가 죽음을 목전에 두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을 세겜 땅에 소집해 놓고 장로들과 수령들, 재판장들, 관리들을 앞으로 나오게 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신앙의 결단을 촉구하는 장면입니다.

수성이 창업보다 어렵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큰 과업인 가나안 정복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이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갈 시간이 되었음을 알았습니다.

평생을 동고동락한 사랑하는 이들과 작별할 시간이 된 것입니다.

무거운 짐을 벗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는 그의 마음이 새털같이 가벼워야 할 텐데 그렇지 못하고 편치 않습니다.

장로들과 수령들, 재판장들, 관리들이 있지만 그의 마음은 마치 철부지 아이를 두고 떠나는 것같이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 백성들이 과연 자신이 떠난 후에도 끝까지 하나님만 섬길 수 있을까?

그리하지 않으면 이들은 필히 멸절하게 될 것인데 어찌나???

이스라엘 백성을 속속들이 잘 알고 있는 여호수아입니다.

서울 근교 가난했던 농사꾼들이 농사짓던 땅이 아파트 부지가 되어 갑자기 땅 값이 뛰어 오르자 벼락 부자가 되었는데 그렇게 벼락 부자가 된 사람들 중 거의 대부분이 허랑방탕한 생활로 졸부 짓을 하다가 가산을 모두 탕진해 버렸다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를 여러분은 심심치 않게 들으셨을 것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보시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가난하고 힘들었던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와 보니 가나안은 정령 광야와는 비교를 할 수 없을 만큼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로운 땅이었습니다.

고생하다 이렇게 갑자기 풍요로와진 그들이 가는 그 다음 수순이 무엇이겠습니까?
안일 주의, 더 나아가 쾌락 주의, 향락 주의로 빠지게 되는 거지요.

그것 뿐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은 이미 일곱 족속들이 그들만의 문화를 형성하면서 자리잡고 살고 있었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문화란 것이 무엇입니까?

농경 생활을 했던 그들의 문화라는 것이 태양신 바람신 등등을 섬기는 우상숭배였습니다.

여호수아는 안일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문화에 동화되어 우상을 섬기게 될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지 않아도 애굽에서 애굽 사람들이 숯 송아지, 숯 염소 등을 우상화하는 것을 보고 기회만 되면
따라하는 판인데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까지 섬기면 설상 가상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살고 있던 족속들을 다 정복하여 쫓아내라고 명령하셨던 것인데
아시다시피 다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여기에 남아 모인 이스라엘 백성 중 430 년 애굽 땅에서 종살이 하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시키셨는가 직접 목격한 사람은 여호수아 뿐입니다.

나머지는 모두 출애굽 후 광야에서 태어났거나 가나안에 들어 와서 태어난 자손들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여호수아가 마음을 놓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렇게 사랑하는 자손들을 모두 모아 놓고 그들에게 지금 당장 신앙의 결단을
내리라고 촉구하는 연설을 하는 것입니다.

**1. 먼저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동안 당신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일들을 열거합니다.**

여호수아는 자손들 앞에서 1-13 절에 걸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탄생시키셨고 또
어떻게 지금까지 이끌어 왔는가를 회고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일(2), 430 년간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일(5),
40 년간의 광야에서 보호해 주신 일(6-7),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 요단 저쪽과 가나안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 가나안 족속과 헛 족속,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등과 싸울 때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의 손에 넘겨 주신 일(8-12), 그리하여 드디어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 수고하지 않은 땅과 건설하지 않은 성읍

등을 차지하고 심지 않은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게 된 일(13)들을 하나씩 하나씩 열거합니다.

2.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신앙적인 결단을 촉구합니다.

(수 24:14)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섬기던 신이란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그의 아버지 데라가 유브라데스 강 건너편 갈대아 우르에서 섬기던 달신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면서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신들을 그대로 보고 따라 섬기게 된 송아지 신, 숫 염소 신 등을 말합니다.

양다리 걸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 내시고 약속의 땅에서 기업을 얻게 하신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아직도 갈대아 우르와 애굽 땅에서 섬기던 우상 숭배의 영향을 받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는 거기 살고 있었던 일곱 종족들이 섬겼던 우상들의 잔재가 여기저기 남아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언제든지 우상 숭배의 유혹을 받을 수 있는 위험천만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백성들을 향하여 여호수아는 ‘여호와도 섬겨라’라고 하지 않고 ‘여호와만을 섬기라’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이외의 어떤 것도 섬기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에서 회색지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엘리아 선지자도 갈멜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하나님과 바알 중에 택일을 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왕상 18:21)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 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마 6:24)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께서서는 두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아울러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길 것을 당부합니다.

말로만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일입니다.

행위와 성령의 열매가 수반될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3. 마지막으로 백성들을 향해 오늘 지금 당장 결단하라고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지도자인 자신의 결단을 결연히 공포합니다.

(수 24:15)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오늘 당장 결단을 내리라고 촉구합니다.

우리에게 항상 선택하고 결단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선택의 기회를 놓쳐 버리면 영영 그 기회가 다시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바로 지금 이 시간이 참되신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만사는 다 때가 있는 법입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당장 결단할 것을 촉구한 후 자신의 결단을 공포합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역사를 몸소 체험했기에 여호와만이 진정한 하나님이란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 430 년의 종살이에서 해방시키기도 하나님이시요, 홍해를 갈라 마른 땅처럼 길을 내 주신이기도 하나님이시며, 반석에서 생수를 터뜨려 마시게 하신이기도 하나님이시고, 광야 40 년 동안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만나를 내려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여 살리신 이도 하나님이셨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 이도 하나님이었으며,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 요단강을 건너야만 했을 때 요단강 물을 그치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무도 무너뜨릴 수 없었던 철옹성 같던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이도,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패권을 놓고 싸울 때 이스라엘이 끝까지 승리를 거둘 수 있도록 해를 중천에 머무르게 한 이도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경험한 여호수아이기에 신앙의 결단을 내리는데 머뭇거리거나 지체할 하등의 이유가 없었습니다.

이 시간 당장 우리도 신앙을 선택하고 결단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신 하나님을 경험한 우리도 신앙의 결단을 내리는데 있어 머뭇거리거나 지체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직 나와 내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라는 여호수아의 신앙 결단과 신앙 고백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신앙 결단과 신앙 고백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